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

이 순 형*

I. 머리말

청소년기는 인지적으로 급격한 발달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청소년은 부모나 학교교육에 의한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시작해 자유롭게 사회현상에 대해 사고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기존 사회체제의 제도적 모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사회적 불평등이다. 불평등현상은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사회가 형성된 이래로 비롯되어진 본질적 문제로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봉착할 수 밖에 없었던 문제이다. 특히 인간의 능력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자유경쟁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구성원들의 의견이 합의된 사회에서, 불평등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인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불평등현상은 구성집단간에 또는 사회구성원들간에 심리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회문제이므로, 현 사회의 불평등현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개념을 살펴보는 일은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 대한 위상을 가늠케 하는 작업으로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현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바를 부자와 빈자에 대한 대인지각(對人知覺), 빈자와 부자에 대한 지각의 호의성, 빈부의 귀인(歸因),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극복가능성에 대하여 선행연구와 본 연구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소비자동학과 교수

1. 청소년기의 사고특성

빠아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현실과 가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사고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동은 자신이 탐지할 수 있는 상황의 모든 속성과 특징을 차례로 순서지우고 상호 연관시키는 등 구체적 조작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개념적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사용한다. 아동도 물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과제에 부합되는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도도 역시 실증적 사실에 밀접하게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아동기의 이러한 사고 특성과는 달리 청소년은 가능한 해결책이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아 보기 위해서 문제 상황을 주의 깊게 검토한 다음에 그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실제적인가를 체계적으로 찾아내려고 한다. 따라서 아동이 현실성에 입각해서 사고를 시작한다면, 구체적 조작단계의 아동에게 추상적 가능성의 영역이란 불확실하게 일시적으로 현실영역을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형식적 조작 사고단계의 청소년에게는 현실세계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진 세계 중의 일부분에 불과하다(Flavell, 1985).

구체적 조작기 아동이 구체적 현실에서 출발하여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 일반적 사실에 도달하는 한편,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 청소년은 일반적 사실에서 출발하여 특정한 사실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즉, 아동기의 사고가 경험적이고 귀납적인데 반해서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는 가설적이고 연역적이다. 연역적 사고 과정에서 논리전개에 잘못이 발견되면, 청소년은 몇 번이고 가설을 바꾸어 가면서 사고를 전개해 나간다. 그러므로,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 특성은 가설 검증적이다.

또한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명제내 사고만이 가능하지만,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은 명제간 사고도 가능하다. 부연하면, 빠아제가 제안한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는 아동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떤 명제를 구성하고 그 명제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이때 아동은 단일 명제 안에서만 그것의 사실적 관계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는 청소년은 하나의 명제를 뛰어 넘어서 둘 이상의 명제를 구성하고 이 명제들 사이의 논리성을 따져 볼 수 있다(서봉연, 이순형, 1982).

이러한 형식적 조작기의 인지적 능력과 사고의 특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은 현재 자신이 귀속되어 있는 사회에 대하여 비판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하여 모색할 수 있으며 자유, 정의, 사랑과 같은 추상적 이념들에 대하여 사고할 수 있으며 현재 사회와는 전혀 다른 이상향(理想郷)에 대하여 꿈꿀 수 있게 된다.

2. 청소년기의 사회인지

사회인지는 인간과 인간사를 대상으로 한 인간과 그 행위에 대한 인지를 의미한다. 사회인지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개념, 대인간의 관계와 3인 이상의 집단 관계, 즉 권력구조 등에 관한 개념과 사고 등이 포함된다(Shants, 1983). 집단관계에 해당되는 개념으로는 친족이나, 국가라든지 사회계층이 있다. 근래에 발달연구자들에 의해 사회인지 연구가 지향하는 대상에 대하여 명료하게 논의되었다. 사회인지 대상은 첫째, 자기를 포함한 타인의 의도, 태도, 정서, 생각, 능력, 목표, 특질, 사고, 지각, 기억 등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순수한 심리적 양상이 포함된다. 둘째, 우정, 사랑, 권력, 영향력 등 인간관계가 지니는 심리적 특성이 그에 속하며, 셋째, 개인의 의식, 자기 결정의 속성과 환경 표상능력에 대한 것(Tagiuri, 1969, p.396)이 포함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간과 사회집단의 특성, 즉 인간 본성, 정부나 사회구조의 역할, 규칙, 제도 등도 생각해야 하며, 개인이나 집단이 도덕적, 법률적, 사회관습적 이유로 인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하는가도 숙고해야 하며 실제로 무엇을, 왜 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사회인지 연구의 대상이 된다(Flavell, 1985). 사회인지 대상의 이러한 특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불평등은 경제제도 및 사회 구조와 관련된 사회 현상으로서 개인이 그에 관해서 무엇을 어떻게 사고하고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과제이다.

3.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청소년의 지각

사회적 불평등은 뒤르켐이 정상적 사회의 특성으로 간주하는 평등과 정의상태와는 대비를 이루는 개념으로서, 시장경제의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아노미적 현상들, 예컨대 무절제한 경쟁, 계층갈등 가운데 개인의 고유한 재능과 선호에 근거한 능력주의 사회에서가 아닌 강요된 분업(Durkeim, 1933)으로 인한 현상이다.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와는 거리가 먼 비정상적 상태로서 완전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거되어야 할 사회악적 현상이라고 뒤르켐은 보았다. 이와 같은 지적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사회의 역기능에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뒤르켐이 지적한 바와는 달리,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어느 시대의 어느 사회에서든 존재해 온 사회 현상이다. 그동안 불평등 현상의 본질적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적 불평등 현상에 대해 학자들간에는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 논의는 크게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으로 대별될 수 있다.

마르크스를 비롯한 갈등론자들이 생산수단에 기초한 양극단 계급을 설정하고 두 계

급간의 갈등을 근본적 사회 구조의 문제로 제안하고 있는 바와는 대조적으로, 베버는 다원론적 관점에 서서 사회계층화 현상을 보고 있다. 베버는 사회가 층화되는 과정에 작용하는 3개의 선이 있다고 주장했다(Weber, Economy & Society, 1,937). 재산계급은 재산의 다양한 배분에 기초하여 구성되며 상인계급은 시장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의 배분에 기초하여 구성되나, 사회계층은 직업이 가지는 명성의 수준에 의해서 구분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두 개의 극단 계급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베버는 4개의 상이한 집단으로 사회계급을 나누었다. 베버의 사회집단은 노동자 집단, 소 자본가집단, 재산이 없는 지식인과 전문가집단, 재산과 교육을 통해 특권을 얻은 집단이 그것이다. 그뿐 아니라 베버는 이와 같이 계급을 분류한 바와는 다른 차원으로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베버에게는 사회내에서 지위는 사다리와 같은 위계로 표상된다.

베버에게 있어서 사회계급과 지위 범주는 사회의 층화체계의 보상적 양상이다. 계급이 생산과 상품의 획득과 관련지위 위계화되는 한편, 지위집단은 생활 양식에서 나타나는 상품의 소비원칙에 의해서 층화된다. 현대사회에서 지위 집단은 그들의 물질적, 이상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 활동을 취한다. 어느 집단이나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버가 개인의 입장에서 사회층화현상을 보고 있다는 점은 마르크스의 집단 중심의 사고와 크게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이 갈등론자들이 집단간 갈등에 초점을 둔 바와 달리 기능론자들은 사회의 균형을 강조하는 입장에 선다. 근래에 신기능론자들은 고전적 기능론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현상이 인간의 자기 성취동기화에 기여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한다.

II. 부자와 빈자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

사회적 불평등 현상은 사회집단의 구조적 양상으로 간주되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에게 현시되는 것은 개인을 통한 빈부 격차이다. 즉, 청소년은 주변에서 부자와 빈자를 만나고, 그들의 경제적 상태에 관해서 나름대로 인지하게 되어 그것을 통해 부자와 빈자에 대한 영상을 형성하고 나아가 부자와 빈자에 대한 개념을 획득하게 된다.

부자와 빈자에 대한 청소년의 개념은 자유로운 기술과제 수행에서 잘 나타난다. 선행연구(백승진, 이순형, 1991; Leahy, 1981)에 따르면, 청소년의 기술은 3가지 범주, 즉 주변 범주, 개인중심 범주와 사회중심 범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각 범주별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은 타인을 그의 소유물, 외모, 행동 등 피상적인 측면으로 지각하는데(Shants, 1983) 이것은 주변적 범주로 분류된다. 둘째, 청소년

년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질적인 측면에서 사물과 인간을 지각할 수 있게 된다 (Shants, 1983).

즉, 아동기에는 타인을 관찰가능한 주변적 범주로 기술하다가 청소년이 되면 점차 개인의 변하지 않는 질적인 측면인 개인의 인성특성, 사고 등과 같은 개인중심적 범주로 타인을 기술하는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데 (Bigner, 1973; Livsley & Bromley, 1973), 이를 개인중심적 범주로 명명한다. 셋째, 청소년이 사회계층에 대하여 집단의 구조를 반영하는 기술, 즉 사회계층에 대한 기술은 단순히 한 개인의 특성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계층별 존경도, 권위, 권력이 다르며 요구하는 역할, 생활 양식, 사회화방식, 계층상승의 기회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집단특성 등으로 기술될 수 있는데 (김채윤, 1972), 이와 같은 집단특성으로 사회계층을 기술하는 것이 사회중심적 범주이다.

1. 부자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

부자에 대한 청소년의 기술 내용을 내용 범주별로 분석한 바는 표 1 및 표 2와 같다. 청소년들은 부자의 특성으로 물질 소유를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열거하고 있다. 특히 부자란 수입이 많거나, 넓은 집을 가진 경우를 우선 조건으로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좋은 차를 가진 사람으로 부자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지 속에는 소득, 주택과 자동차가 부자를 한정짓는 물질적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질 소유 이외에 청소년이 부자를 기술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응답은 인성, 건강과 외모, 가족원, 권력, 지식, 명예, 직업(지위), 도덕성, 가족배경, 소유 등 10가지 내용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응답은 인성 범주에 속하

〈표 1〉 부자의 물질 소유에 대한 인지

구 분	응답사례	응답자 수	구 분	응답사례	응답자 수
1. 물질	수입(돈)이 많은 사람	26	2. 소유	비싼물건이 많은 사람	1
	재산이 많은 사람	3		(3대가)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	2
	넓은 집(자기집)	11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	1
	방수가 많은 사람	1		과목마다 가정교사가 있는 사람	1
	넓고 좋은 차(여러대)	6	3. 여가	해외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사람	1
	땅이 많은 사람	4			
	외제차	2			
	비싸고 좋은 옷	6			

〈표 2〉

부자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범주

	호의적 지각		비호의적 지각	
구 분	응답사례	(응답자수)	응답사례	(응답자수)
인 성	열심히 일하는 사람	(3)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	(1)
	좋은 사람	(2)	차별하는 사람	(1)
	마음이 풍요롭고 편한 사람	(3)	사치를 하는 사람	(2)
	인정많은 사람	(2)	돈을 막 쓰는(과소비) 사람	(3)
	항상 웃는 사람	(2)	크리스마스때나 행사때만	(1)
	인격 덕망이 높은 사람	(1)	자기의 부를 나타내기 위해	
	남을 돕는 사람	(1)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	
	의지가 굳은 사람	(2)	남을 무시하는 사람	(1)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	(1)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1)		
건 강 , 외 모	몸이 건강한 사람	(2)		
	몸이 청결한 사람	(2)		
	절보기가 화려한 사람	(2)		
가 족 원 소 유	자녀가 많은 사람	(2)		
	부모가 있는 사람	(1)		
권 력	권력이 많은 사람	(3)		
지 식	지식(학식)이 많은 사람	(5)		
명 예	명예가 있는 사람	(3)		
직 업 (지 위)	지위가 높은 사람	(4)		
	좋은 직장 가진 사람	(1)		
자 기 지 각	마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6)		
도 덕 성	양심 있는 사람	(1)		
가족배경	백이 많은 사람	(1)		
소 유	가정부, 비서가 많은 사람	(1)		
	공부 잘하는 사람	(1)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1)		

는 것으로, 이 응답은 호의적 진술과 비호의적 진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호의적 진술과 비호의적 진술의 전형적 사례를 들어보면, 호의적 진술의 사례는 ‘인격 덕망이 높은 사람’과 같은 응답이며, 비호의적 진술의 사례는 ‘사치하는 사람’과 같은 응답이다.

2. 빈자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자를 소득이 많고, 넓은 집에 살며 여러 대의 차를 소유한 사람으로 제한시키는 것과 동일한 논리적 맥락에서 빈자를 물질적 결핍상태로 규정짓고

〈표 3〉

빈자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범주

구분	응답사례	(응답자수)	구분	응답사례	(응답자수)
물질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	(6)	인성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	(1)
	돈(수입)이 적은 사람	(10)		게으른 사람	(1)
	빛이 많은 사람	(2)		돈만 아는 사람	(1)
	공부방이 없는 사람	(1)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1)
	집이 없는 사람	(9)		이기주의자	(1)
	집이 나쁜(좁은) 사람	(2)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1)
	차가 없는 사람	(2)		마음이 불편한 사람	(2)
	식량(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	(2)
	걱정하는 사람	(4)		돈이 없으나 마음이 넓은 사람	(1)
	집세(세금) 독촉받는 사람	(1)		자신이 순수하고 가난하다고	(1)
	공납금 못내는 사람	(2)		생각하는 사람	
	학비 보조금을 받는 사람	(1)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1)
	재산이 없는 사람	(2)		마음이 나쁜 사람	(1)
				웃음이 없는 사람	(1)
학력	학력(지식)이 부족한 사람	(3)	건강	몸이 아픈 사람	(1)
직업 지위	낮은 직업지위(청소부, 경비원) 의 사람	(3)		몸이 더러운 사람	(3)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2)		몸이 여윈 사람	(2)
	직장이 좋지 않는 사람	(2)	외모	단정치 못한 사람	(1)
귀속 지위	천척 중 명사가 없는 사람	(1)		옷이 더럽고 신가방이 떨어진 사람	(1)
	백이 없는 사람	(1)		촌스럽고 작은 옷을 입은 사람	(1)
권력, 명예	권력(힘)이 없는 사람	(2)		나쁜 옷을 입은 사람	(2)
	명예가 없는 사람	(1)		초라해 보이는 사람	(1)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	(1)		가난을 숨기고 싶어 너무 멋을	(1)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	(1)		부린 사람	
자기 평가	돈이 없어도 마음 편히 사는 사람	(1)	여가	여가를 즐길 시간과 돈이	(1)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1)		없는 사람	
	소신껏 사는 사람	(1)			
	마음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3)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1)			

있음을 표 3에서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빈자란 수입이 적고, 집이 없거나 식량 등 물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한정짓고 있다. 이러한 물질 범주 이외에 청소년은 빈자를 규정하는 범주로 학력(지식), 직업지위, 귀속지위, 권력 및 명예, 인성, 건강 및 외모, 여가를 들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많은 응답 가운데 긍정적 속성을 지닌 응답은 주관적 평가란에서의 7개 응답인데 비해서, 대부분의 응답사례는 빈자의 부정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응답자가 부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데 반해서, 빈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베블렌(1899) 이후 제기되어온 고전적 연구주제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뒷장으로 미룬다.

III. 부자와 빈자에 대한 청소년의 개념 범주

부유층과 빈곤층을 기술하는 응답을 내용분석한 연구(백승진, 이순형, 1991)에 따르면 부유층과 빈곤층에 대한 기술은 (1) 주변적 범주, (2) 개인중심적 범주, (3) 사회중심적 범주 등 3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주변적 범주는 단순한 직업명칭, 소유물, 외양, 행동 등을 포함하며, 개인중심적 범주는 개인의 인성특성, 동기, 전반적인 가치관, 지식, 지능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회중심적 범주는 사회제도나 구조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사회중심적 범주는 직업, 소득, 교육, 거주지와 같은 사회계층을 측정하는 지표, 부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외현적으로 명백히 표현되는 생활의 기회, 계층이 다른 개인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외현적으로 명백히 표현하는 계층의식 및 사회와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의 하위 범주로 범주화된다.

부유층과 빈곤층을 기술하는 응답이 아동의 연령과 계층(소속 계층, 지각한 사회 계층)에 따라 범주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동이 두 계층을 기술하는 응답의 범주별 비율을 아동의 연령과 소속 계층, 지각한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유층을 기술하는 주변적 범주의 응답비율은 감소하였고 사회중심적 범주의 응답비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빈곤층을 기술하는 주변적 응답비율이 높은 집단은 8세 집단, 12세 집단, 15세 집단의 순서였다. 주변적 범주의 응답비율은 8세 집단과 12세 집단이 15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개인중심적 범주의 응답은 12세 집단, 15세 집단이 8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중심적 범주의 응답비율이 높은 집단은 15세 집단, 12세 집단, 8세 집단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상으로 구체적 조작기 전기에 속하는 아동은 소유물, 용모, 행동, 단순한 직업명칭으로 계층을 기술하고 점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성특징이나 태도, 가치와 같은 개인중심적인 범주로 계층을 기술하며,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상 형식적 조작기인 청소년기에 이르면 권력, 생활의 기회, 계층의식과 사회중심적인 범주로 계층을 기술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을, 다른 사회인지과제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어릴수록 인지적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자극의 피상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높지만 사물과 인간을 점차 변하지 않는 질적인 면에서 지각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나타나고 사춘기가 되면서 사회구조에 관한 인식이 발달한다는 사회인지능력의 발달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유층과 빈곤층을 기술하는 응답이 계층(소속 계층, 지각한 사회계층)에 따라 범주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본 결과, 소속 계층에 따라 부유층과 빈곤층을 기술하는 범주별 응답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아동은 자신이 지각한 계층과 실제 소속 계층에 관계없이 부유층을 동일한 범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IV. 부자와 빈자에 대한 지각의 호의성

부자에 대해서 비호의적으로 지각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자의 여러 특성을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있는데 비하여, 빈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호의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사실은 부자들의 부의 축적은 긍정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빈자는 재산의 축적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한 기질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Veblen, 1899)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이런 입장에서 대인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청소년은 부유층이나 빈곤층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자는 성실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호의적으로 해석하고 빈자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비호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Feagin, 1972; Karnoil, 1985)이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부의 축적을 부자의 과도한 욕심과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비호의적으로 해석하고, 빈자의 빈곤은 마음에 욕심이 없거나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빈곤하다고 호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Stacey & Singer, 1985)이 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소속 계층에 따라 자신과 유사하다고 지각한 사회계층과 자신과 유사하다고 지각하지 않은 사회계층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로 조사대상자의 사회계층에 따라 부유층과 빈곤층에 관해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드물기 때문이며 현재까지 진행된 몇몇 연구들의 결과마저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개인은 부유층과 빈곤층을 기술하

거나 설명하거나 지각할 때 연령과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부자와 빈자에 대한 지각의 호의성을 조사한 연구(백승진, 이순형, 1991)를 살펴보면, 부유층과 빈곤층에 대한 호의적 지각과 비호의적 지각이 조사대상의 연령과 계층(소속 계층, 지각한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상이 부유층과 빈곤층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응답반응을 호의적 지각과 비호의적 지각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부유층에 대한 호의적 지각의 빈도는 12세 청소년이 가장 높았으며 부유층에 대한 비호의적 지각의 빈도는 15세 청소년이 가장 높았다. 한편 빈곤층에 대한 호의적 지각의 빈도는 15세 청소년이 가장 높았으며 빈곤층에 대한 비호의적 지각의 빈도는 12세 집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기인 15세가 사회계층 인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를 연령집단별 지각의 호의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부유층에 대한 호의적 지각이 높은 집단은 12세 집단, 8세 집단, 15세 집단의 순서였으며, 부유층에 대한 비호의적 지각이 높은 집단은 15세 집단, 12세 집단, 8세 집단의 순서였다. 부유층에 대한 호의적 지각은 12세 집단이 15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부유층에 대한 비호의적 지각은 15세 집단이 8세 집단, 12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이 15세 집단에서 부유층에 대한 비호의적 지각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춘기에 나타나는 인지발달의 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의 경제체도나 정치체제가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회구조적인 면에 대한 인식이 부유층에 대한 지각 속에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다음으로, 부유층과 빈곤층에 대한 호의적 지각과 비호의적 지각이 계층(소속 계층, 지각한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소속 계층에 따라 부유층과 빈곤층에 대한 지각의 호의성은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사회계층을 상, 중상, 중하, 하류로 지각한 집단으로 나누고 아동과 청소년의 부유층과 빈곤층에 대한 호의적 지각과 비호의적 지각 빈도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자에 대한 호의성과 빈자에 대한 비호의성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중상류 계층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고 지각한 아동과 청소년이 다른 어떤 계층집단보다도 부자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비호의적 지각에 있어서도, 자신이 중상류 계층에 속해 있다고 응답한 아동과 청소년이 빈자에 대해서 다른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보다도 비호의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속 계층과 지각한 사회계층에 따라 부유층과 빈곤층에 대한 지각의 호의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심리적 범주인 사회계층에 대한 지각의 호의성이 청소년이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와 그들이 지각한 계

층귀속 의식에 따라 다름을 나타낸다. 이는 개인이 경험하는 객관적 현실은 주관적 의식에 의해 굴절되어 부유층과 빈곤층에 대한 지각의 호의성과 비호의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V. 빈부의 원인에 대한 청소년의 설명

청소년이 빈부격차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는 청소년 자신이 현재 귀속지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직결된 사회인지로서, 현재 사회체제에 대한 그의 인지뿐만 아니라 사회이동 동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빈부 현상에 대해 청소년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부의 원인 지각

〈표 4〉 부자가 된 이유

구 분	응 답 사 례	응답자수
성품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2
	책임감이 높다	1
	인정이 없다	1
	열심히 일한다	13
	노력한다(연구한다)	5
	절약한다	1
상속	유산(재산)이 많다	12
	직업을 대 잇는다	1
운	운이 좋다	3
	벼락부자(땅, 주식, 부동산, 복권 등)	8
학식	학식이 높다	3
자본	돈이 많다	6
기술, 능력	사업수단이 좋다	1
부당한 축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투기(땅투기, 증권)	6
	한탕주의	1
	불법 행위, 공금을 빼돌려 나쁜 짓을 함	2
	착취(노동자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다시피 함)	2
직업지위	지위가 높다	2
귀속지위	백이 많다	1

백승진과 이순형(1991)의 자료 중에서 15세 청소년 30명의 자료를 응답 범주별로 재분석해 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은 부의 원인을 표 4와 같이 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부자가 된 원인을 근면한 성품과 같은 긍정적 인성 특성이나 귀속 지위로 인한 유산 상속에 귀인하였으며, 그외에 부의 형성을 부동산 투자로 인한 벼락부자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정당하지 못한 투기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부의 형성을 부동산 투기에 귀인하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현실로서, 지난 10여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왔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청소년들은 근면한 성품과 같은 개인적 특성도 부자가 되는데 기여하는 요인이 되지만, 재산의 전승이 부유한 지위를 대를 이어 계승시킨다는 점과 경제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정당하지 못한 부의 축재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 빈곤의 원인 시각

청소년들이 빈곤의 원인을 설명한 바를 표 5에서 살펴보면, 빈곤의 가장 두드러진 이유로는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개인의 성품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빈곤의 상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기능론적 낙관론에 입각해서 응답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기회의 부족 및 그로 인한 낮은 직업 지위, 빈곤의 대를 이은 계승과 부자들에 의한 상대적 박탈 등의 사회제도 문제에 대한 갈등론적 인식도 빈곤을 보는 시각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부 현상에 대한 청소년의 설명을 설명 내용별로 논의한 연구(백승진, 이순형, 1991; Leahy, 1983)를 보면, 청소년의 설명은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은 연령이 어릴수록 빈부의 차이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이유(Leahy, 1983)로 설명하는데 이와 같은 설명범주를 구체적-개인적 범주라고 한다. 이 범주는 빈부의 차를 설명함에 있어 분배과정시에 작동하는 논리적인 기제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다.

둘째, 피아제(1932)는 6세부터 11세 사이에는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권위, 획일적 평등 원칙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변화를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이처럼 빈부의 차이를 개인 노력의 양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획일적 평등범주에 해당한다(Adams, 1968; Leahy, 1983).

셋째, 개인의 수행도가 우월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비례적 평등범주이다(Adams, 1968).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아동들이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6세부터 11세 사이에도 비례적 평등원칙이 점점 우위를

〈표 5〉

빈자가 된 이유

구 분	응 답 사 례	응답자수
성품	게으르다	13
	인격과 덕망이 없다	1
	착해서 남에게 속기만 한다	1
	노력하지 않는다	16
	의욕이 없다	8
	욕심이 없다	2
	술만 마신다	2
	가난하니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한다	1
	일을 당하거나 사고가 나면 회복할 힘이 없다	1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1
소득	일한 댓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한다	1
	수입이 적다	1
운	운(재수)이 나쁘다	5
교육	배우지 못 했다	6
	실력이 없다	1
기회부족	노력하고 성실해도 학비가 없어서 교육받지 못한다	1
	하루 하루 살아가기 바쁘다	4
	부유층에 가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4
	돈으로 끼니만 때우므로 돈을 벌 수 없다	2
상대적 박탈	부유층에 피해를 받아서	1
	부유층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2
	부유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한다	1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	1
소비문제	부채의 이자 갚느라고 저축이 어렵다	1
	지출이 많다	1
	저축을 잘 못한다	1
	사치를 좋아한다	1
	돈을 낭비한다	1
가족부양	자식이 너무 많다	1
	식구의 질병으로 돈을 쓴 경우가 있다	1
직업지위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노동을 하지 못한다	2
	지식 부족으로 좋은 곳에 취직하지 못한다	1
	직업이 없다	2
	월급(임금)이 낮다	2
사회여건	사회제도의 문제 때문이다	1
	우리 여건상 돈 없이는 돈을 벌 수 없다	1
	세상이 험하다	1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대우하지 않는다	1
경제여건	집값이 오른다	1
귀속·지위	부모가 가난했다	4
	유산이 없다	1

차지한다는 점을 밝혀서 이에 관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Hook & Cook, 1978, 1979; Leahy, 1983).

넷째, 연령과 관련된 또 하나의 변화는 사회구조에 대한 개념의 발달인데, 예를 들어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 개인에게 얼마나 이로운가에 근거해서 합법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전체 사회에 얼마나 이로운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Adelson & O'Neil, 1966).

이와 같이 빈부의 차이를 사회의 정치, 경제체계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회중심적 범주라고 한다(Leahy, 1981). 이러한 경향은 셀만(Selman, 1976)의 연구에서도 입증되어서, 형식적 조작기인 청소년기에는 서로 다른 집단 혹은 역할간의 조망 차이는 인습이나 사회구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서로 다른 집단간의 조망 차이를 고려하는 능력이 증가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청소년기 동안 사회체계의 유지나 변화에 있어 사회적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중심적 범주로서 빈부의 차이를 설명하는 응답이 형식적 조작기 동안에 증가할 것으로 추론된다.

실제로 빈부 현상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설명(백승진·이순형, 1991)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유층에 대한 구체적-개인적 범주의 응답비율과 획일적 평등범주의 응답비율은 8세 집단이 12세 집단 및 15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반면 비례적 평등범주의 응답비율은 12세 집단 및 15세 집단이 8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사회중심적인 범주의 응답비율은 15세 집단이 8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빈곤층에 대한 청소년의 설명을 살펴보면, 구체적-개인적 범주로 설명하는 응답비율은 8세 집단이 12세 집단 및 15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례적 평등범주의 응답비율은 12세 집단이 8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사회중심적 범주의 응답비율은 15세 집단이 8세 집단 및 12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사회인지 과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인지발달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피아제 이론을 입증한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빈부의 차이를 돈이 많거나 운이 좋아서 부유하다는 구체적-개인적 범주로 설명하거나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는 획일적 평등범주로 설명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개인의 단순한 노력보다는 교육, 직업, 금전관리능력, 개인의 지적 능력의 차이와 같은 비례적 평등범주로 부의 축적을 사고한다. 또한 부유층이 현재 부유하게 사는 것은 부유층에게 훨씬 많은 기회가 주어지거나 현재의 경제체도가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면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반영한다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인지 능력의 발달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

로서, 아동은 연령이 어릴수록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나쁜 짓을 해서 가난하거나 혹은 병이 들어서 가난하다는 등 빈부의 차이에 관한 논리적 이해가 부족한 응답을 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단순한 논리로 빈부의 차이를 설명함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직업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비례적 평등범주와 물가가 높거나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등 빈곤층이 계속 빈곤층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인 면에 대한 인식의 증가를 반영하는 사회중심적 범주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실은 부의 축적을 사회중심적 범주로 설명하는 것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리이(1983b)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부유층과 빈곤층을 설명하는 응답이 청소년의 계층(소속 계층, 지각한 사회 계층)에 따라 범주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계층집단간 응답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지각한 계층에 따라 부유층과 빈곤층을 설명하는 아동의 응답을 지각한 사회계층에 따라 각각 분석한 결과, 전체 범주별로는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실제 소속 계층과 자신이 지각한 계층에 관계없이 빈부의 차이를 동일한 범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사회계층에 따라 계층에 따른 빈부의 차이를 비례적 평등범주로서 설명하는 응답에 차이가 있다는 미국사회의 연구(Leahy, 1983)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경우, 교육의 기회를 통해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기능론적 인식이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보수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비례적 평등범주에 해당하는 항목을 사회화의 내용으로 내면화하고 이것을 부유층의 부의 형성을 설명하는 사고에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아동이 사회중심적인 범주로 부의 형성을 설명하는 응답에서 실제 소속계층과 지각한 사회계층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실제로 하류계층에 속하며 자신이 하류계층에 속한다고 지각한 아동은 객관적 사실에 바탕하여 실제 소속계층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각하는 사회인지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는 아동의 경우, 사회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부의 형성을 사회중심적 범주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계층을 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부유층과 빈곤층을 설명하는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계층에 대한 인지에서 그 계층에 소속되는 소속원의 입장을 가장 잘 배려하는 사고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유층은 개인의 노력과 인성요인으로

부의 형성을 설명하는 인지적 경향을 보이는 반면, 빈곤층은 개인의 능력과 인성요인과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는 경제제도의 불합리함으로 인한 빈곤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설명하는 인지적 경향을 보인다.

3. 귀속 지위에 따른 빈부의 원인 지각

빈민지역 아동과 중류층 아동을 대상으로 빈부의 원인을 지각하게 하였을 때, 빈곤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민 가족 등을 대상으로 8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 100명과 동수의 중류층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빈부의 원인을 조사해 본 연구 결과(이순형, 신양재, 김영주, 1991), 빈곤 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은 빈곤의 원인을 실업(49.7%), 술버릇이나 노름(46.7%), 게으른 성격(43.4%), 가족의 병(37.7%)과 저교육(34.4%)의 순서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빈곤 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은 빈곤의 원인으로 가족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빈곤의 원인을 지각하는 양상을 보임을 나타내며, 이들의 응답과 중류계층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의 빈부의 원인에 대한 응답과의 미있게 차이가나는 것은 게으름, 술버릇이나 노름, 부친 부재, 실업과 저교육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류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빈민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보다 빈곤의 원인을 게으름, 술버릇과 노름, 부친부재, 실업과 저교육에 더 두고 있다. 게으름, 술버릇이나 노름 등은 성품과 관련되었거나 생활 양식과 관련된 부정적 생활태도를 의미한다. 직업과 관련된 저교육 양상은 사회직업 구조와 관련된 인식인 바, 이처럼 중류가정의 응답자들이 빈곤가정의 응답자들보다 빈곤의 원인으로서는 직업구조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부연하면, 중류가정에 속해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빈부의 원인을 성품이나 학습된 무력감과 같이 개인에게 귀인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사회직업의 구조에도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빈곤가정에 속해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보다도 중류가정의 응답자들이 보다 더 명료하게 빈곤의 원인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의 원인에 대한 지각을 살펴보면, 빈곤아동은 근면(54.9%), 좋은 직업(54.1%), 절약(49.2%), 교육(41.8%), 유산(40.2%)을 꼽아서, 빈곤의 원인 지각과 마찬가지로 부의 형성에도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정 아동의 부의 원인 지각 중 중류가정 아동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근면, 교육, 좋은 배경과 절약이다. 이는 빈곤가정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김영모(1990)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인데, 이것은 연구대상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빈곤 가구주는 빈곤의 원인을 자신들의 체험에 기초하여 귀속적인데 두는데 비해, 빈곤가정의 아동은 빈곤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유동

〈표 6〉 빈부의 원인 지각

빈 부	요 인	원 인	빈민지역 (%)	중류지역 (%)	F값
빈곤	개 인 적 요 인	게을러서	43.4	63.7	11.102***
		술버릇, 노름	46.7	64.7	7.433***
	가 족 적 요 인	유산이 없어서	29.5	17.6	0.495
		아버지가 없어서	19.7	44.1	16.589***
		가족의 병 때문에	37.7	42.2	0.457
	사 회 적 요 인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49.7	72.5	13.256***
		교육을 받지 못해서	34.4	54.9	9.754**
		사회가 불공평해서	28.7	28.4	0.002
부유	개 인 적 요 인	부지런해서	54.9	71.6	6.710***
		절약을 해서	49.2	67.6	7.586***
	가 족 적 요 인	유산을 많이 받아서	41.8	54.9	3.852***
		부모를 잘 만나서	34.4	46.1	3.156*
		배경이 좋아서	24.6	26.5	0.041
	사 회 적 요 인	직업이 좋아서	54.1	64.7	2.355
		교육을 많이 받아서	41.8	54.9	3.852*
		사회가 불공평해서	9.8	9.8	0.001

* $p < .05$, ** $p < .01$, *** $p < .001$

출처: 이순형, 신양재, 김영주, 빈곤가정 아동의 환경지각 연구, 1991, p.124.

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아 빈민의 운명, 체념주의적 사회심리적 의식의 내면화 정도가 아직은 낮다고 볼 수 있다.

VI. 사회적 불평등의 극복 가능성에 대한 청소년의 사고

사회적 불평등이, 뒤르켐의 지적처럼, 사회의 정상 기능에 불필요한 사회학적 현상이라는 주장은 모든 사람이 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이상론이다. 이러한 이상적 견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는 측면에서, 또한 사회적 불평등이 사회구성원에게 지위 상승에 대한 열렬한 동인을 불러일으키므로 결과적으로 사회가 발전된다는 주장이 신기능주의 학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는 바이다. 15세 청소년들에게 사회구성원 전체가 부자인 사회가 이룩될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았을 때,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

우는 40%,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0%였다. 이러한 응답은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사회적 불평등 현상의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거나 혹은 없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청소년의 자유응답을 분석해 보았다. 사회적 불평등이 완전히 해결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가지의 내용범주로 나타난다. 첫째 범주는 정직하고 근면하며 근절절약하는 생활태도를 통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범주는 부유층과 빈곤층 사람들의 협력과 부자들의 이

〈표 7〉 사회적 불평등의 극복 가능성에 대한 사고

극복 가능		극복 불가능	
구 분	사례(응답자수)	구 분	사례(응답자수)
생활태도의 개선(정직, 근면, 근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다(6) 거짓없이 산다(1) 과소비를 줄여 저축한다(3)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1)	생활태도의 문제	노력하지 않는다(3)
		능력차	능력의 차이가 있다(6)
계층간 협력(부자의 양보)	부자와 빈자의 협동심(2) 부자가 빈자를 배려해야한다(3) 부자가 이기적 과욕을 줄이고 양보해야 한다(5)	기득계층의 경제력과 이기심	기득층의 경제력이 재투자할 여유 있다(5) 자기의 이익만 생각한다(5)
		배분의 불공평성	노력의 댓가만큼 소유하는 사회가 못된다(3) 한정된 재화로 배분은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6)
제도개선	국가제도의 개선과 운영(1) 새로운 경제제도의 확립(2)		
교육 통한 개선	교육을 통한 능력 고양(1)	사회경제 제도의 문제	취직이 어렵다(1) 집값 인상(2), 기회부족(1) 강력한 정부 정책이 없다(2) 사회제도의 잘못(2) 복지국가의 실현이 어렵다(1)
		사회불안	사회, 정치, 경제불안(3)
		사회적 불평등의 불가피성	어느 사회든 빈곤층이 있다(1) 빈곤층과 부유층이 있어 조화를 이룬다(1)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이다(1)
		귀속지위	백이 없다(1)
		인구	인구가 너무 많다(1)

기심을 줄인 양보심에서 완전한 평등사회가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다. 이 두 가지 범주의 응답이 전체 응답의 7/8을 상회한다.

응답빈도로는 몇 사례가 안되지만, 국가제도, 특히 경제제도의 개선을 제시한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합한 새로운 경제제도를 확립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2사례가 있었다.

한편, 사회적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를 응답한 범주는 8개 범주로 나타난다. 첫째 범주는 빈자의 개인 특성, 즉 능력의 부족과 생활태도의 문제 범주이다. 둘째로는 기독교층의 기존 경제력과 그들의 이기적 경제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범주는 사회의 한정된 재화로 인해 분배의 불공평성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 응답범주이며, 넷째 범주는 우리 사회의 경제제도의 문제로 인한 응답범주이다. 이상의 네 가지 범주의 응답은 사회적 불평등 범주로 불평등 현상의 극복 불가능성에 대한 추론의 주 내용을 이룬다. 추론 논리 중에서 두드러진 사실은 사회적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로 개인의 특성 요인보다도 사회적 요인과 기독교층의 기독교 유지 양상을 더 중요한 원인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15세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빈곤한 사람이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조사해 본 결과, 가능하다(20명)는 응답은 불가능하다(8명)는 응답보다 2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가 실제로 계층이동을 허용하는 개방적 사회로서 기능하고 있는가와 구성원들이 그러한 사회로 지각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회에 귀속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회에서 자신의 미래생활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그 사회의 계층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는 조사해 보는 것은 곧 청소년 자신이 속할 미래 사회가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사회인가를 가능해 본 결과를 알아보는 작업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청소년의 대부분이 빈곤한 사람도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계층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데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계층이동을 허용하는 열린 사회로서 인지되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기능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이러한 사고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획득할 지위가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믿고 있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야 하는 명분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비록 숫자상으로는 약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빈자가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될 수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설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은 빈자의 인성, 경제 여건, 상대적 박탈, 학습된 무력감과 정책적 배려의 부족으로 빈자의 탈빈곤 현상이 억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들이 열거한 이유 중 인성과

〈표 8〉

빈자가 빈곤을 극복할 수 없는 이유

구 분	응답 사례	응답자수
인성	근성은 버릴 수 없다 노력하지 않아서	2
경제 여건	집값 상승을 따를 수 없어서 물가가 올라서	3
상대적 박탈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해서 욕심 많은 부유층 때문	2
학습된 무력감	중간 착취를 당하니까 노력해야 소용없다	3
정책적 배려의 부족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조치가 없다	1

경제여건의 일부 이유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상대적 박탈과 학습된 무력감과 같은 이유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빈곤의 순환현상을 보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학습된 무력감을 언급한 한 여학생의 말은 15세 청소년들이 빈곤의 탈피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그 때문에 사회 불안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빈부차는 결코 없을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은 정당한 방법으로 가난을 벗어 나기 힘들다. 그래서 일부 가난한 사람은 강도나 살인과 같은 불법행동을 저지른다.”

VII. 맺음말

어느 사회든 그 사회가 건강하게 기능하는지, 그 수준을 논의할 때,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사항은 사회계층 이동의 개방성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빈곤 계층에 소속된 사람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인 경우에 그 사회는 개방 체제로서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계층이동이 폐쇄된 사회에서보다 사회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적고 구성원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덜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사회계층 이동의 개방성 정도가 구성원 개개인에게 심리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밝혀져야 할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실제적으로 연구되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개인이 귀속되어 있는 사회가 실제로 얼마나 계층이동을 허용하고 있는가와 그 사회구성원들이 그 사회를 어떠한 사회로 지각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전자는 객관적 실체에 관한 사회학도의 물음이며 후자는 주관이 반영된 지각된 실체에

관한 사회인지학도의 물음이다. 지각된 현상도 실제이상으로 유기체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의의가 크다. 그러므로 본연구는 사회에 귀속된 개인이 그 사회의 불평등이라는 역동적 현상에 대하여 지각하고 있는 바를 밝혀 보려는 시도의 하나로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과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인지양상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청소년들은 현 사회의 핵심 주역이 아닌 예비인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성인들과 다르게 사회적 불평등을 객관화시켜서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허용적인 개방 체계로 비추어지고 있는가를 밝혀보기 위함에서이다.

본 논문은 사회적 불평등 현상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를 살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사회적 불평등 현상은 사회집단의 구조적 양상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현시되는 것은 개인을 통해 나타나는 빈부격차이다. 따라서 부자 또는 빈자에 대해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바는 곧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청소년들은 빈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서 물질의 풍요나 결핍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인성, 외모와 건강, 권력, 지식, 명예, 직업(지위), 귀속지위 등 인지범주에서의 양극개념으로 인지하고 있다. 빈자와 부자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은 피상적 수준에서와 심층적 수준에서의 인지로 구분되는데, 피상적 수준에서 나타난 부자에 대한 긍정적 특성 지각은 호의적 지각과 관련되며 빈자에 대한 부정적 특성 지각은 비호의적 지각과 관련된다. 빈자와 부자에 관한 지각의 호의성 여부는 청소년이 속해 있는 사회계층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즉, 중상류 계층에 속해 있다고 지각한 청소년은 다른 어떤 계층에 속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보다 부자에 대해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빈자에 대해 가장 비호의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둘째, 빈부의 원인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인성 등 개인적 특성과 세대간에 빈부격차를 누적시키는 가족의 귀속지위에 귀인하며, 또 한편으로는 부당한 축적을 가능하게 하거나 빈곤의 순환고리를 탈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여건과 교육 및 직업제도 등 사회구조적 특성에 귀인하고 있다. 이러한 귀인은 청소년이 속해 있다고 지각한 귀속지위에 따라서 다른데, 중류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은 빈곤가정의 청소년에 비해서 빈부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과 사회의 직업구조와 관련하여 귀인하고 있다.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은 중류층 청소년에 비해 유산이 부족하다는 점 이외에는 아직 뚜렷하게 사회구조적 요인에 귀인하지 않고 불평등현상을 개인의 노력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유동적 현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빈곤가정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체념주의적 계층의식의 내면화 정도가 아직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회적 불평등이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완전한 평등 사회는 이룩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기존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과 정치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내에서 사회적 불평등현상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은 불평등의 극복이 어려운 원인을 개인의 능력 차이와 생활태도의 문제, 기득 계층의 기존 경제력과 이기적 경제행위, 마지막으로 제한된 재화의 분배에서 나타나는 제로섬 현상으로 귀인하고 있다. 이러한 귀인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불평등의 극복방안을 기능론과 갈등론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즉, 개인적으로는 성실, 근면한 생활태도를 지녀서 개인의 노력을 통하여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기능론적 해결책과, 계층집단간에는 기득층의 이기심을 줄이고 기득권의 양보와 협력에 의해서 불공평한 분배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갈등론적 해결책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귀속 지위에 무관하게 사회현상을 개인과 사회집단의 기능과 구조적 측면에서 인지하고 있으며, 그 또한 건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제안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고 무리가 없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기능하게 하고 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극복을 위한 청소년의 지적과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사회정책으로 받아들이며, 중등교육 기관의 교과내용에는 물론이거니와 언론매체를 통한 청소년 교육내용에도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모(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채운(1972) “기능주의적 사회계층론”, 서울대 논문집, 17집, 65~88.
- 백승진, 이순형(1991), “사회계층에 대한 아동의 인지발달연구”, 생활과학연구.
- 서봉연, 이순형(1982), 발달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부.
- 양영진(1991), “뒤트캠의 불평등론”, 김채운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사회계층 : 이론과 실제, 서울 : 다산출판사, 97~114.
- 이순형, 신양재, 김영주(1991), “빈곤가정 아동의 환경지각 연구”, 아동학회지, 11권, 1호, 113~128.
- Adelson, J. & O'Neil, R.P.(1966) Growth of Political Ideas in Adolescence: The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 No. 3, 295~306.
- Bigner, A.(1974) Wenerian 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Description of

- siblings. *Child Development*, 45, 317~323.
- Durkeim, E.(1893)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olog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33
- Feagin, J.(1972) Poverty: We Still Believe That God Helps Those Who Helps Them selves. *Psychology Today*, Vol. 6., No.6 101~129.
- Hook, J.G. & Cook, T.D.(1978) The Development of Equity and Logicomathematical Thinking. *Child Development*, 49, 1035~1044.
- _____(1979) Equity Theory and the Cognitive Ability of Children. *Psychological Bulletin*, 36, No 3, 429~445.
- Karnoil, R.(1985) Children's Causal Scripts and Derogation of the Poor: An Attribut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791~798.
- Leahy, R.L.(1981)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ion of Economic Inequality: I. Descriptions and Comparisons of Rich and Poor People. *Child Development*, 52, 523~532.
- _____(1983) Development of the Conception of Economic Inequality: II. Explanations, Justifications and Concepts of Social Mobility and change. *Child Development*, 19, 111~125.
- Livesley, W.J. & Bromley, D.B.(1973) *Person Percep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London: Wiley.
- Shants, C.U.(1983) Social Cognition. In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Development*. N.Y.: Wiley & Son.
- Skafe, D.(1988) The Effect of Perceived Wealth & Poverty on Adolescents' Character Judgement.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9, 93~99.
- Stacey, B.G. & Singer, M.S.(1985) The Perception of Poverty and Wealth Among Teenagers. *Journal of Adolescence*, 8, 231~241.
- Veblen, T.(1899)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Y.: Modern Library.